

탕탕교의 거짓 예언

2018년 전쟁 괴질 발생 등

2004년 똑같은 예언 모두 빗나간 전력 있어

최근 소위 탕탕교(大善이라고도 함) 소속 신도가 승리제단 간부 몇몇에게 서신을 보내 주장하기를 내년 가을쯤 전쟁과 괴질이 오고, 이 괴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밥 대신 원자를 변화시켜 먹으며, 원자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변하여 우주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비행체가 되어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며, 태양빛보다 700배 더 밝은 빛(하나님)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희성 구세주님과 박태선 영모님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했으니 빨리 탕탕교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탕탕교의 이러한 주장과 예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남북전쟁 절대 못 일어나

첫째,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하셨다. 구세주의 5대공약 중 남북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은 엄연히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남북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하셨음에도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괴질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둘째,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앞으로 치명적인 괴질이 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먼저 3년간 흉년이 든 다음 괴질이 돈다고 하셨고, 승리제단 신도들이 자유율법을 잘 지키면 괴질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예외적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탕탕교의 괴질 발생에 대한 부분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앞으로 구세주의 얼굴에서 광선이 발하는데 그 빛은 태양빛보다 수십 배 밝은 빛(2001년 5월 27일 말씀 참조)이라거나 수억천만 배 밝은 빛(1989년 6월 16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700배 더 밝은 빛이 나간다고 그 숫자를 특정한 말씀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빛 발산 시점 특정 안해

넷째,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시기를 2018년이라고 결코 특정하지 않았다. 2008년이라고 특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은 구세주께서 보광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지는 호조건 때의 예언이다.

구세주께서 보광하셨으므로 앞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발산

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심판의 빛이므로 의인들은 그 빛으로 하나님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날아다니며 사는 쾌락의 빛이지만 죄인에게는 뜨겁기만 하고 죽일 수는 없는 고통의 불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는 마귀가 한 마리로 남김없이 다 없어진 후라고 말씀하셨다.

다섯째, 구세주 조희성님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인류구원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하셔서 보광하신 지금도 하나님의 신으로 인류구원의 대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평범한 인간의 죽음과 구세주의 보광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탕탕교는 격암유록을 소의 경전으로 하여 자기네를 입맛에 맞게 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암유록의 주인공은 박태선 장로님과 조희성 구세주님이라는 것은 격암유록을 정독하여 풀이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탕탕교에서는 이만제 선생의 육도삼락에 7도니 8도니 9도라는 것을 덧붙여 7도는 토운(土運)으로서 이현석이며, 8도는 월운(月運)으로서 김쌍규이며, 9도는 일운(日運)으로 자기네 교주인 김재

규지금은 개명하여 다른 이름을 쓴다고 하면서 조희성 구세주의 후계를 잇는다고 해괴망창한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억지 추창이요 견강부회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육도삼락은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중천시대를 맡은 주인공을 각 2도로 지정하여 각 시대를 이끌어 가는 분들을 해설한 도표이며, 이를 해설한 책이 삼역대경이다. 이 내용에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이려면 정확한 근거와 해설이 있어야 함에도 멋대로 주장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팔째, 탕탕교는 일전에 2001년부터 세계적 가뭄과 각종 괴질이 창궐한다고 예언하였고, 2004년도에 개벽이 일어나 신인합일된 사람만 살 수 있다고 예언(『君火 대개벽과 생명재창조 완성』, 김자연 편저, 도서출판 무극대조)하였지만 그 예언이 부도가 되었던 전례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종교다.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시기가 특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은 인류를 죄인과 의인으로 심판하는 때이며, 심판은 죄인들의 죄를 구세주가 담당하여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시켰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14)

“먼저 자신이 영생을 얻어야”

승리제단에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영생은 21일이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21일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삼백 명의 의인이 나오면 이 세상은 영생의 세상으로 호몰랑 뒤집어지는 것이다. 의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물결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뒤덮게 되면 이 영생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영생 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세계가 뒤집어진다. 이 말씀이 방송으로 나가면 전 세계 만민들이 은금보화를 잔뜩 짊어지고 몰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로, 이 학설로 전도를 못 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유율법, 타인과의 관계 규율할 수 있다

요즘 승리제단 신도들 간에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자유율법을 어겼느냐,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신도들이 있다. 특히 예배 보는 태도 중 과도한 제스처로 손뼉을 치거나, 악을 쓰는 듯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유율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율법은 성경적인 술어이지만 일반 기독교인들조차 생소하게 생각하는 용어이다. 우리 승리제단에서도 자유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율법을 적용해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신도들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는 안 어겼다고 하니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기준이 필요하다.

자유율법을 완성한 구세주 조희성님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의 법이 자유율법이라고 명확히 정의해 주셨다. 따라서 자유율법은 누구든 하여 그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옳다고 하겠다.

자유율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즉 자유율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켜지

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유율법을 지켰느냐 여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지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을 규율하는 자유율법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자유율법은 타인과의 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 법으로 규율하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자유율법은 마음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자유율법을 범한 마음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반(反) 자유율법적 마음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배교행위, 음란죄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와 그밖에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죄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예배 보는 태도가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치거나 흥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승리제단의 예배당은 개인 혼자 참석하는 곳이 아니므로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운영위원회 및 신도들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인사명령

▶ 승사 임명 : 조건우 (전도부)
▶ 책임 승사 : 안준영 (호주 시드니제단)

주어진 성직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제단 5지역 3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5지역 강춘희 부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7월 7일 4월 11일 화요일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5지역이 2017년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역 1등을 차지하였으며 1지역이 지난달 3등에서 한 계단 더 상승하여 2등을 차지하였고 4지역이 한 계단 내려앉아 3등을 차지하였다. 5지역

은 고선희 권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 1등과 개인 1등 그리고 구역 1등까지 1등을 모두 차지하였다.

개인 성적으로는 고선희 권사가 전체 1등, 김수정씨가 2등, 김종만 승사가 개인 3등을 차지하였으며 구역성적으로는 42구역이 1등, 53구역이 2등, 45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45구역의 구역 3등에는 7월 1일 강연회에 가장 많은 분들을 인도함으로 인도 점수가 추가되었다.

윤봉수 회장은 “이 길은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다른 사람 가는 길을 보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못마땅한 것이 보인다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

은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는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책임자가 아니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또한 지적을 당했다고 하여 화를 내며 싸워서는 안 된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 주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99%라고 하셨다. 그러나 마귀 입장에 서버리면 하나님이 되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이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지역)

-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2등: 1지역(지역장: 김종만, 지회장: 박경옥)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구역)

- 1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 2등: 53구역(구역장: 석선자)
- 3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개인)

- 1등: 고선희 권사
- 2등: 김수정
- 3등: 김종만 승사*

이번 호부터 새 인재들이 두 개 있습니다

- 2면: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이긴자 하나님의 역사
- 4면: Immortal Valley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 4층에서 내린 이슬성신



새식구 환영식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야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능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